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HTUM

가제 : 입을 달아버린 아이

저자 : Jem Lester

출판사: Orion

발행일: 2016년 4월 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S H T U M .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열 살 소년, 아이 때문에 선택한 위장 이혼과 예상치 못한 변화

열 살이 되었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혼자서 옷을 입거나 밥을 먹지 못하는 소년 조나. 종종 자폐증을 앓고 있는 조나와 아이를 어떻게든 제대로 키우려고 발버둥치는 맞벌이 부부 벤과 엠마의 힘겨운 일상은 위장 이혼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벤은 아픈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평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던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각자 다른 이유로 ‘말이 통하지 않는’ 남자 셋. 3대가 모여 드러나는 망가진 의사소통의 단면이 유쾌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로 그려진다.

위장 이혼이라는 위태로운 선택은 오로지 조나를 위한 결정이었다. 벤과 엠마는 자폐아만 전문적으로 돌보며 교육하는 기숙학교에 조나의 입학을 신청했지만, 지역 당국은 실망스러운 심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조나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극진히 돌보고 있으니 특수학교 입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부부가 체감하는 일상은 심사결과와는 전혀 달랐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겨우 버틸 정도였다. 조나는 한시라도 감시를 게을리하면 거대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어 치우거나 (그냥 먹어 없애는 것으론 만족하지 못해서 냉장고 문이며 바닥, 부엌 곳곳에 아이스크림을 발라버리고) 학교에서도 온갖 사고를 친다. 엠마는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혼란스러운 일상에 조나의 증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더 어릴 때만 해도 몇 마디 우물대던 단어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부부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낸 통보 내용이 야속하기만 할 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생각한 엠마는, 수소문 끝에 묘안을 떠올린다. 부부가 원하는 지원을 받고 조나를 제대로 된 특수학교에 보내려면, 가정 환경을 조건에 맞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고, 엄마

가 아닌 아빠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조건이야말로 사회복지과의 지원대상 심사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엠마는 황당해하며 기겁하는 벤을 설득해 오직 조나를 위해, 위태로운 거짓말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서먹한 아버지와 한 집에 살게 된 남자, 자폐증 아들까지 3대가 겪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건들

결국 벤도 승락을 하고, 부부는 서류상 위장 이혼을 감행한다. 벤은 최종 지원 결정을 위한 심사를 기다리며 홀로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조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마침내 시작된 심사. 눈은 날카롭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회 복지사들이 줄지어 벤과 조나를 만나러 찾아오고, 벤은 점점 까다롭게 진행되는 심사 과정을 하나하나 잘 넘기려고 애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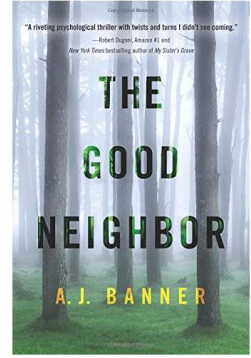
평소 1년에 몇 번, 크리스마스 정도 외에는 왕래도 없던 벤과 아버지 조지는 느닷없는 동거에 서로가 너무나 어색해하고, 조나는 특유의 순수함으로 그 어색함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헤집고 다닌다. 그런데 몇 개월간 이어지는 심사 기간 동안, 벤은 아버지에 관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세상에 머무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벤은 평생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던 아버지와 관계 회복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다. 과연 조나는 부부의 소망처럼 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좋은 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을까? 벤과 아버지의 관계는 늦게나마 달라질 수 있을까? 모두를 지켜보면서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개개인의 정체성과 가족의 역사, 서로간의 오해를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조나를 통해,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해묵은 갈등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자폐아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의 실상, 힘든 결정을 내리고 아이와 부모가 겪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엉뚱한 사고들이 만들어내는 웃음이 때로는 흥미진진하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그려진 데뷔작이다. 실제로 자폐아를 키우고 있는 작가가 그린 가족의 일상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저자 소개>

젼 레스터(Jem Lester)는 9년 동안 기자로 활동한 후 중학교에서 영어와 미디어 과목을 가르쳤다. 데뷔작인 위 소설은 '피터스 프레이저 전롭 시티 대학교((Peters Fraser Dunlop City University)'에서 수여하는 소설상을 받았다.

제목 : THE GOOD NEIGHBOR
가제 : 좋은 동네
저자 : AJ Banner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9월 1일
분량 : 204 페이지
장르 : 소설



수풀이 우거진 고급 주택가, 한가롭고 평화로운 마을을 덮친 뜻밖의 화재사고로 드러나는 진실들
3년 전 조니와 결혼한 새라는 10월의 한가로운 어느 저녁, 누구나 꿈꿀 법한 아름다운 집에 홀로 남아 출장 간 조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새로운 치료법들에 관한 강연을 들으며 한창 낮이 나가 있을 남편을 떠올리며, 새라는 아직 신혼 같은 애뜻한 기분을 느꼈다. 조니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그가 이미 장만해놓은 워싱턴 새도우 코브의 그림 같은 집은 바로 근처에 초목이 우거진, 멋스러운 거리와 이웃들도 하나 같이 좋은 푸근한 동네에 자리한 드림하우스였다. 아동도서 작가인 새라는 얼른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조니와 통화를 하던 새라는 옆집에 차 불빛이 다가서자 얼른 창문을 열고 내다봤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옆집 킴볼 네가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떠나면서 새라에게 자신들 집에 별일 없는지 챙겨봐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킴볼 부부와 그 집 네 살짜리 꼬마 미아가 여행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다.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 새라는 늘 미아를 유독 예뻐해서, 혹시 아이가 아파서 여행을 일찍 끝내고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 때 마침 미아의 엄마 모니크 킴볼이 초인종을 누른다. 해변에 다녀온 사람답게 가무잡잡해진 모니크는 숯을 빌려 달라고 하고, 새라는 바람이 꽤 많이 부는 날씨에 여행에서 오자마자 바비큐를 한다는 말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흔쾌히 숯을 건넨다.

새라는 이 동네에 살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똑같이 생긴 집들이 마주한 이런 곳에서는 사생활이든 비밀이든 만들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집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흰히 보이니까. 하지만 정말 비밀은 아예 만들 수 없을까? 새라는 밖에서도 보이는 모습들과 달리, 각자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묘한 생각에 잠긴다.

친구, 이웃, 남편, 모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각자의 비밀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
모니크를 배웅하고, 다시 조니를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든 새라는 모니크 네 뒷마당에서 솔솔 풍겨오는 바비큐 냄새와 웅얼대듯 간간히 들려오는 그 집 가족들의 말소리를 느끼며 잠을 청한다. 이내 그 웅얼거림도 잦아들고, 앞집 마당에 시동을 켜 채 앉아있던 두 젊은 남녀도 이제 대화를 끝냈는지 시동 소리가 꺼지자 온 동네가 고요함에 빠져 든다. 새라가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거센 바람이 뿜, 하며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다시 눈을 뜬 새라는 시계가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것을 확인한 직후, 벽에 웬 주황색 불빛이 가득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공기 중에 가득 퍼진 연기의 냄새까지 느껴진다. 새라는 얼른 머리맡 램프를 켜고 창가로 달려갔고,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은 순식간에 쿵광대기 시작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김볼네 1층 창문에서 자욱한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화재 경보음이 귀를 찢듯 울려대기 시작하고, 어린 아이가 내지르는 울음소리가 그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미아였다. 불길의 솟구치는 1층 바로 위층 방에서 자고 있었을 아이가 공포와 두려움에 미친 듯이 질러내는 비명이었다.

새라는 미아를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불이 타오르는 옆집으로 돌진하고, 그 과정에서 그만 무너진 파편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 정신을 차리자, 불길은 잡혔지만 감당하기 힘든 처참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다. 옆집에서 하루아침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의 충격에 빠진 새라와 조니는 다시 일상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새라는 혼란스러운 진실을 하나 둘 접하기 시작한다. 그 불은 정말 사고였을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평범한 한 가정을 그리도 무참히 없애려고 한 걸까? 급기야 전혀 의심한 적 없는 남편 조니에 관한 믿기 힘든 사실까지 드러나기 시작하고, 새라의 행복마저 뿌리부터 흔들린다. 그가 이웃, 친구,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그들은 다 누구일까?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물들이 모여, 각자의 비밀과 욕구를 숨긴 채 사랑과 '집'이라고 부를 만한 안전한 곳을 찾으려 절박하게 노력하는 동네. 화재 사고로 서서히 드러나는 모두의 비밀을 쫓아가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A.J. 배너(A.J. Banner)는 인도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워싱턴에 살면서 인간의 심리 깊숙한 곳, 가장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서스펜스 소설을 쓰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제목 : THE JUDGMENT

가제 : 심판

저자 : D.J. Niko

출판사: Medallion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10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솔로몬이 거대한 왕국을 건립한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 그를 몰락시키려는 자들의 배신과 음모
기원전 10세기,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무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의 흥망성쇠가 흥미진진한 역사 소설로 재탄생했다. 영광의 제국을 건립했지만 결국 다 잃어버린 이야기, 아름다운 여자들에게서 헤어날 수 없었던 그가 자신의 뼈대가 되어준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영적 타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반도 알아채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과정이 그려진다.

이집트의 파라오 세송크 1세가 이끄는 적군과 상대하다 패색이 짙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북부 메기도 요새까지 공격을 당하고 만다. 잡힐 위기에 몰린 솔로몬 왕의 딸 베이스매스는 어린 딸을 데리고 서둘러 몸을 숨기지만 이집트 군은 공주를 찾아내고, 두 사람은 결국 포로로 잡혀간다. 베이스매스는 절대 발각될 수 없는 은신처가 적군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분명 이집트 군과 소통하는 반역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꿈쩍 없이 적군에게 끌려간 베이스매스는 그 배신자의 실체가 다름아닌 아버지 솔로몬 왕의 최고 심복,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인다. 그가 왕을 배신한 것으로 모자라, 이집트로 망명한 후 아버지가 세운 왕국을 갈갈이 찢고 그 왕좌를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이스매스는 그 엄청난 탐욕과 교활함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다. 그토록 찬란하게 번성하던 아버지 솔로몬 왕의 대제국이 대체 왜 적군에게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야만 했을까? 무엇이 그 견고하던 솔로몬의 왕정을 허물어뜨렸을까?

소설은 그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기 전, 솔로몬이 막 왕좌에 앉은 기원전 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으로 갓 지명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신전’을 건립하는 거대한 사업을 시작한다. 신전을 장식할 금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들리자, 그는 당시 이집트 파라오였던 프스센네스 2세와 협상을 하기로 결심하고 여행길에 오른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프스센네스 2세의 아름다운 딸 니콜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다. 반드시 그녀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솔로몬은 협상 내용에 자신의 결혼까지 포함시키고, 두 왕은 서로가 만족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니콜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솔로몬에게 이끌려 이스라엘로 떠나야 했다.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남자는 당시 이집트 군의 사령관이던 세송크였다.

타의로 사랑을 잃은 여자, 초심과 믿음을 잃어버린 왕, 무서운 복수심과 증오, 배반의 대서사시

니콜은 어쩔 수 없이 솔로몬과 결혼하여 딸까지 낳았지만, 세송크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솔로몬과 함께 산 35년 동안 남편을 한 순간도 경멸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오직 세송크의 애정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일급기밀을 모조리 전했다. 게다가 왕의 심복이면서도 자신의 일에 환멸을 느끼던 야로보암의 검은 속내를 알아챈 니콜은 그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동맹을 맺기에 이른다. 두 사람은 솔로몬을 배신하고 왕이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리자는데 뜻을 함께한다. 그러나 아내와 오른팔과 다름 없던 신하의 배신만이 솔로몬을 파멸시킨 건 아니었다. 왕좌에 올라 막대한 권력을 등에 업은 솔로몬은 어느새 오만하고 지나치게 제멋대로 사는 추악한 사람으로 변모했고, 무엇보다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준 신앙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믿음을 잃은 왕, 도덕이 몰락한 국민들이야말로 적군의 공격에도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게 만든 뿌리 깊은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 수수께끼 같은 여왕이 나타나 분별력을 잃은 솔로몬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영혼을 다시 한 번 구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뒤늦게 사태를 깨달은 솔로몬은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한편,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아버지와 나라 전체를 배반한 중심 인물이었음을 깨달은 베이스매스는 니콜이 세송크에게 자신이 솔로몬의 딸이 아닌 세송크의 딸이라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파라오가 된 세송크는 니콜과 베이스매스를 이집트로 데려와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베이스매스는 딸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솔로몬 왕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D.J. 니코(D.J. Niko)는 다프네 니콜로풀로스(Daphne Nikolopoulos)의 가명으로, 현재 전세계를 돌며 기자이자 작가, 에디터, 강연가로 활동 중이다. 고고학과 스릴러를 접목한 시리즈 소설 <<The Sarah Weston Chronicles>> 등을 발표했다.

제목 : LAWYER FOR THE DOG

가제 : 애완견 변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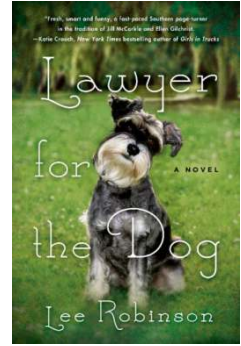
저자 : Lee Robinson

출판사: Thomas Dunne Books

발행일: 2015년 7월 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소설



자식도 남편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며 살고 있는 중년의 이혼녀, 애완견 변호사가 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국선 변호사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샬리 베이나드. 비록 엄마가 늘 바랬던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가정법원 판사인 남편 조와 헤어진 이혼녀지만, 그래도 법조계에서 꽤 성공한 변호사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지낸다. 살인자, 강간범, 도둑, 마약 거래상 등 지독한 범죄자는 물론이고 다리에 자신의 아기를 던져버린 젊은 엄마, 음식 맛을 타박하는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후려갈긴 80세 할머니까지 샬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부터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범죄까지 가리지 않고 변호해왔다. 똑똑하고 위트 넘치면서도 유머러스한 자기비하가 버릇인 샬리가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자신의 결혼생활이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벌써 18년째, 마흔아홉 살 이혼녀로 사는 그녀의 동감내기 전 남편 조는 어느 날 황당한 사건 하나를 그녀에게 맡긴다. “아주 큰 부탁이 하나 있어.” 그는 전화로 이렇게 운을 띄웠다.

‘매력적인’ 사건인데다 꽤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밀밥부터 던지는 조.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샬리가 변호해야 할 대상이 ‘개’라고 하는 것이다. 조는 그 개가 미니어처 슈нау저종이고, ‘셔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4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온 어느 60대 부부의 골치 아픈 이혼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다고 설명한다. 아내는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확신하지만 남편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었다. 언뜻 보기엔 가정법원에 흔히 등장하는 돈 많은 노부부의 이혼 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부부가 셔먼을 소중히 ‘재산’의 하나로 여기고, 서로 가지려고 다툼을 벌인다는 것. 조는 소유권이 결정되기 전에 셔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변 조사를 벌인 후 누가 양육자로 적당한지 법정에 추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부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법정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아끼는 것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위트 넘치는 필체로 그린 소설

평생 개를 한 번도 키워본 적 없고,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 샬리는 왜 조가 그 역할을 맡을 변호사로 자신을 택했는지 알 수도 없고 황당할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따져 물어도 조는 딱히 속 시원히 대답하고 간곡히 부탁한다. 결국 엉겁결에 셔먼의 변호를 맡기로 한 샬리. 그런데 알츠하이머 증상 때문에 중요한 것도 수시로 잊어버리는 엄마가 셔먼의 사진을 보고는, 수십 년 전 샬

리의 집에 머물렀던 개 '브라우니'의 이름을 떠올려 셸리를 놀라게 만든다.

셔먼을 둘러싼 이혼 재판의 첫 심리가 열리는 날, 법정을 향하던 셸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아주 잔혹하고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범들, 온 언론이 '악마', '괴물'로 부른 사람들을 변호할 때도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웬지 셔먼이라는 개를 변호한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게다가 이혼 중인 부부의 남편 측 여자 변호인은, 두뇌가 엄청나게 명석하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본인의 섹시한 매력도 적극 활용하며 법정을 휘두를 줄 알기로 법조계에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셸리.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셔먼이 그저 떠맡은 고객이 아닌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싶은 존재로 셸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버리고, 셔먼을 돌보던 중 매력적인 수의사 토니까지 만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긴다. 인생의 재미와 로맨스가 젊은이들의 전유물은 아님을 깨달은 그녀는 사랑과 결혼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데, 과연 셸리는 네 발 달린 고객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재치 넘치는 인물들, 폭소를 자아내는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을 날낱이 파헤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 로빈슨(Lee Robinson)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내는 등 20년 넘게 법조계에서 일했다. 위 작품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CULTURE COUNTS

가제 : 문화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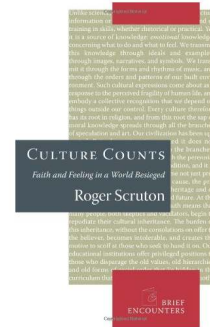
저자 : Roger Scruton

출판사: Encounter Books

발행일: 2007년 5월 1일

분량 : 120 페이지

장르 : 문화



로저 스크러튼이 파헤쳐본 서구 사회의 뿌리 깊은 정체성 문제, 문화에서 그 해답을 찾다

문화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문화를 보존해야 하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로저 스크러튼이 쓴 이 책에서는 서구 문화에 반대하는 서구 사회 내부의 비판적 의견과 외부 세계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서구 문화가 죽었다’는 소문은 심각하게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문화야말로 윤리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원천이라고 설명하면서 서구 문화가 ‘죽은 백인 유럽 남성의 유물’에 다름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반기를 든다.

이슬람 국가들의 급진적인 도전, 내부에 형성된 다문화주의로 서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이 서구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찬란한 성과의 틀이 되었지만, 한 때는 도덕적 기준의 일차적인 원천이던 종교를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더 이상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엄청난 경제적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 받은 것이 사실이나 서구 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말았다.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 긍정주의, 체계적인 제도,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 교육 방식은 유럽과 전혀 다른 모습이며, 미국은 나라가 건립된 시작부터 그 나라만의 고유한 장소, 고유한 시간이 없는 국가였기에 서구 사회 전체가 미국에 크게 의존할 수록 정체성 논란은 더욱 긴박하고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문화는 과학과 달리 사실로 이루어진 정보나 이론적 진실이 축적된 저장고도 아니고 특정 기술을 익혀야 하는 분야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정서적’ 지식, 즉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느끼는 것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인간은 이 정서적 지식을 이미지, 말, 상징을 통해 전달하고, 음악의 형태와 리듬, 인간이 만든 환경의 질서와 패턴을 통해 전한다. 이와 같은 문화적 표현은 인간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스스로 인지하고 그에 반응하여 만들어낸 결과이자,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포괄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술, 철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T.S. 엘리엇이 언급한 ‘참된

판단의 공통적인 추구'를 옹호하고, 탄탄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산물인 자기 인식, 자신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목차>

- 1장. 문화란 무엇인가?
- 2장. 여가생활, 컬트, 그리고 문화
- 3장. 지식과 감정
- 4장. 비판의 활용
- 5장. 문화를 가르치는 것
- 6장. 문화 전쟁
- 7장. 희망의 빛

<저자 소개>

로저 스크루턴(Roger Scruton)은 미국 철학연구소(Institute for the Psychological Sciences)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워싱턴과 옥스포드의 대학원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문학과 건축, 정치 등 많은 분야에 대한 대중적인 논평가이자 철학자로, 총 30권이 넘는 미학, 철학 관련 서적을 집필해왔다. 저서로는 <OUR CHURCH(우리의 교회: 영국 교회의 사적인 역사,2012)>, <GREEN PHILOSOPHY(녹색 철학,2012)>, <THE USES OF PESSIMISM(비관주의 사용법, 2010)>, <I DRINK THEREFORE I AM(나는 마신다 고로 존재한다,2010)>, <UNDERSTANDING MUSIC(음악의 이해,2009)>, <A POLITICAL PHILOSOPHY(정치 철학: 보수주의를 위한 논쟁,2006)> <SEXUAL DESIRE(성적 욕망, 2006)> 등이 있다.

제목 : WHAT GREAT SERVICE LEADERS KNOW AND DO

가제 : 서비스업 리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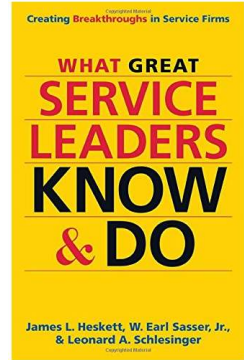
저자 : James L. Heskett, W. Earl Sasser, Leonard A. Schlesinger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5년 9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영



미국 전체 경제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서비스 리더십의 모든 것

전 세계 근로자의 대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는 일자리가 줄어서 문제인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선진 경제국가에서는 중산층을 주 고객으로 삼는 전문 서비스업과 사업적인 서비스업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다른 직종보다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도 높고 미래에는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업무 방식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전 세계 노동인구의 직업 만족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 서비스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서비스업의 리더십은 직원의 충성도와 더불어 고객을 향한 충성도를 좌우하고 업무 생산성, 직원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이윤, 더 넓게는 도시와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경영학자로 꼽히는 세 명의 저자는 이 책에서 다가올 미래에 성공적인 서비스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고객과 직원의 가치에 관한 방정식, 서비스와 이윤의 연결고리 등 세 저자가 개발한 서비스업 경영에 관한 각종 개념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재까지 연구 활동으로 파악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후 이상적인 서비스 리더십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고용, 훈련, 업무 현장의 체계화 방안, 시설 설계, 역량 개발, 고객 대기행렬 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략 구축 방법,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돕는 최신 기술의 활용과 오용 사례, 최고의 고객을 회사의 '소유주'로 변모시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돕도록 이끄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서비스 리더십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과 변화 양상을 예측한다.

아폴로 병원, 스타벅스, 아마존, 디즈니, 훌푸드, 이케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를 실제 사례로 들면서 불필요한 실패를 막고 막대한 성공을 획득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목차>

1. 획기적인 서비스업의 차이
2. 서비스 전략,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하라
3. 사업 운영 전략, 서비스 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 내부의 질을 높이고 활용하라 - “일하기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기
5. 혁신적인 서비스업의 기본 요소
6. 성공을 부르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
7. 서비스 마케팅: 소비자를 주인으로 변모시켜라
8. 미래를 향한 서비스

<저자 소개>

제임스 L. 헤스켓(James L. Heskett)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 미국마케팅협회로부터 ‘서비스 경영 분야 공로상’을 받았다.

W. 얼 새서 주니어(W. Earl Sasser, Jr.)는 1969년부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2년 서비스 경영에 관한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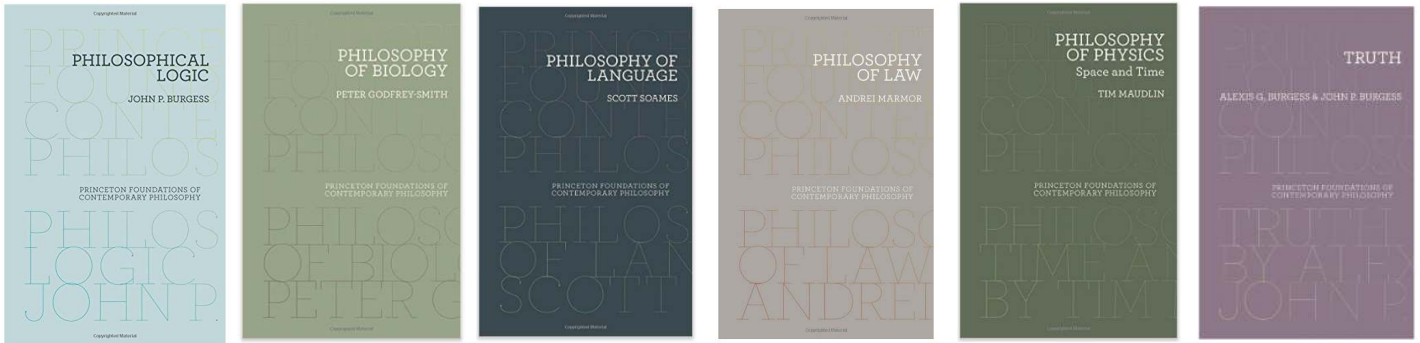
레오나드 A. 슐레징거(Leonard A. Schlesinger)는 밥슨 대학교에서 12대 총장을 역임한 후 2013년부터 다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PRINCETON FOUNDATIONS OF CONTEMPORARY PHILOSOPHY (총 6권)

가제 : 프린스턴 현대철학의 기초 시리즈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장르 : 철학



1. 철학 논리 (PHILOSOPHICAL LOGIC)

저자: John Burgess / 발행일: 2012년 8월 26일 / 분량: 168 페이지

철학적인 여러 관심사들을 비교전적 논리를 통해 비판적으로 탐구한 결과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정통 논리를 먼저 설명한 후 비교전적 논리의 다섯 가지 갈래를 소개하고, 공식적인 사고의 장치와 직관적 동기 사이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충돌에 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각종 철학 모형의 관계, 논리의 전통적인 목표, 논쟁의 평가 방식과 더불어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장치와 전제를 비판적인 눈으로 재평가한다.

존 버제스(John Burgess)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논리학으로 박사를 취득한 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수학 논리, 철학 논리 등에 관한 수백 편의 논문과 7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2. 생물학의 철학 (PHILOSOPHY OF BIOLOGY)

저자: Peter Godfrey-Smith / 발행일: 2014년 1월 26일 / 분량: 200 페이지

생물학 이론과 철학 이론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철학과 과학의 관계를 논의한다. 생물학 이론의 특징인 각종 법칙과 기계론적인 설명, 이상적으로 구현된 모델을 탐구하고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 과정을 짚어보고, 인간의 생각, 문화, 그 외 다른 현상을 다윈이 구축한 장치를 확대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의 의미와 가능성을 평가한다.

피터 갓프리-스미스(Peter Godfrey-Smith)는 뉴욕 시티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Theory and Reality》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3. 언어의 철학 (PHILOSOPHY OF LANGUAGE)

저자: Scott Soames / 발행일: 2012년 9월 24일 / 분량: 200 페이지

언어 철학의 핵심이자 철학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가지 개념인 ‘진실, 참조, 의미’를

짚어본다. 러셀, 타르스키, 크립키 등의 철학자가 논리학과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개발한 정교한 기술들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기술이 인간의 자연적인 언어를 다듬고 확대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전제,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 의미와 주장의 관계 등 언어 사용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고찰한다.

스캇 솜스(Scott Soames)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Philosophical Essays》, 《Reference and Description》, 《Philosophical Analysis in the Twentieth Century》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4. 법의 철학 (PHILOSOPHY OF LAW)

저자: Andrei Marmor / 발행일: 2011년 1월 17일 / 분량: 184 페이지

법이란 무엇인가? 언뜻 '사실'의 문제로 생각되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점에서 법에는 규범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저자는 법의 근본적인 특성에 관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법이 갖는 사실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 그 특성들에서 비롯된 수많은 의문점, 지난 수세기 동안 법조계에 지배적으로 존재한 생각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안드레이 마머(Andrei Marmor)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을 가르치고 있다. 《Social Conventions: From Language to Law》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5. 물리학의 철학 (PHILOSOPHY OF PHYSICS)

저자: Tim Maudlin / 발행일: 2015년 5월 26일 / 분량: 200 페이지

물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주와 시간의 특성과 구조를 둘러싼 철학의 핵심 쟁점을 소개하고 물리학자들에게는 우주와 시간 이론의 개념적 기초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뉴턴의 시공간에 관한 역사적 견해와 갈릴레오,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진 상대성 이론을 통해 상대성의 개념을 정량적으로 고찰한다.

팀 모들린(Tim Maudlin)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역사를 공부하고 러트거스 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6. 진실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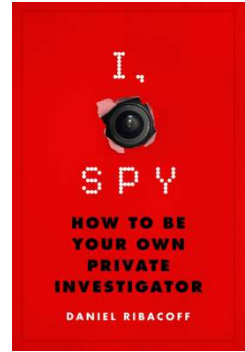
저자: Alexis Burgess, Jon Burgess / 발행일: 2014년 8월 31일 / 분량: 176 페이지

진실의 특성, 진실과 가치의 격차, 진실과 의미의 관계, 진실에 관한 상대론과 다원론 등 진실을 둘러싼 광범위한 쟁점을 설명하고, 진실을 이론화하려는 현대 철학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알렉시스 버제스(Alexis Burgess)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존 버제스(John Burgess)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논리학으로 박사를 취득한 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I, SPY
가제 : 내가 바로 탐정
저자 : Daniel Ribacoff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6년 2월 9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실용



경찰이 아닌 탐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수십 년 경력의 사립탐정이 귀똥하는 유용한 팁

아주 오래 전 소식이 끊어진 친척이나 거액의 사기를 치고 도망간 자의 행방을 찾고 싶은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주변 사람이 왠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기분이 자꾸만 들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탐정 앤 리바코프가 이런 상황에서 직접 탐정이 되어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수십 년 동안 공공 안전을 비롯해 개인의 사적인 일에 관한 조사나 신뢰성 평가를 담당하면서 갈고 닦은 경력을 바탕으로, 해야 할 조사와 하지 말아야 할 조사, 사람의 행방을 찾는 방법, 그리고 가정과 소중한 재산, 사생활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옆집 이웃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깬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아이는 펄쩍 뛰면서 억울하다고 한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남편이 2주 전부터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투덜대는데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 운영하는 회사에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력서를 냈는데, 언뜻 봐선 괜찮은 사람 같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태도나 범죄 경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민간 조사업은 커커이 쌓인 거짓말과 속임수를 파헤쳐 겉으로 보이는 상황의 전혀 다른 면을 찾아내고, 증거로 그 의외의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다. 정보를 찾고, 사실만 걸러내고, 곧 다가올 일을 예견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바로 민간 조사자, 즉 탐정이 하는 일이다. 프로 탐정인 저자는 오랜 세월을 걸쳐 실제로 활용해보고 검증된 탐정 활동의 팁과 더불어 뉴욕 시 한복판에서 실제 범죄 수사에 참여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거의 대부분에서 민간 조사자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민간 조사업이 법제화되지 유일한 나라에 속한다. 정부도 사설탐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3월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설탐정'을 100여개의 신직업 목록 중 첫 번째로 등재하고 국회는 2005년 9월 민간조사업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사립 탐정을 대신하여 개개인이 직접 사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벌일 때 활용할 만한 요긴한 전략을 소개한다. 단순한 거짓말 탐지 기

술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안전하게 획득하여 찾고자 하는 진실을 ‘발굴하는’ 기술들이 40 편이 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친절한 용어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

<목차>

- 1장. 길거리를 주시하라: 물리적 감시
- 2장.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눈: 전자 감시
- 3장. 가서 데려와: 사람의 행방을 찾는 법
- 4장. 진짜 범죄: 거짓말을 입증하려면
- 5장. 쓸모 있는 증거: 증거를 모으는 법
- 6장.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면
- 7장. 안전한 우리 집: 집, 사업, 소중한 것 지키기
- 8장. 신원 도둑: 사생활 지키기
- 9장. 이봐, 물러서라고!: 내 몸을 지키는 법
- 10장. 탐정의 눈, 공공의 눈: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법
- 11장. 댄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자 소개>

대니얼 리바코프(Daniel Ribacoff)는 민간조사업체인 ‘International Investigative Group, Ltd.’의 CEO로 23년 넘게 조사 활동을 해 왔다. 뉴욕 경찰로부터 199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고, AIG 보험사에서 발생한 1억 2000만 달러 은행 사기 사건,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 오사마 빈 라덴 조사 등 굵직한 범죄 수사에 참여했다.

제목 : THE AUTOIMMUNE EPIDEMIC

가제 : 자가면역 질환의 대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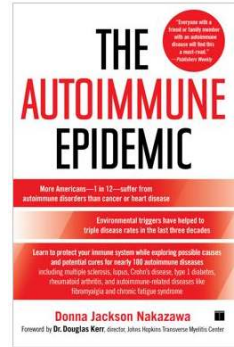
저자 : Donna Jackson Nakazawa

출판사: Touchstone

발행일: 2009년 2월 1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건강



대규모로 확산된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성과 최신 치료법, 예방법을 포괄적으로 소개한 건강서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제 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몇 십 년 전에 비해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진단법이 개선되거나 질병의 진단 기준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난 결과다. 면역체계는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은 따로 구분해서 인지하고 외부에서 침입한 세포, 바이러스, 세균 등은 즉각 공격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다. 제대로 기능하면,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한 기전을 통해 이 두 가지 임무를 해내고 인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그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군을 무차별 공격하는 ‘자가 면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촉발시켰을까?

지난 40여 년 동안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면서 면역체계의 역할과 역량도 가파른 절벽에 다른 것처럼 위기로 내몰렸다.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자극들,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무수한 감염원과 맞닥뜨리면서 면역체계는 인체를 보호하려 고투를 벌이지만 실수가 연발하고, 면역과 자가면역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아예 자기 몸을 공격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살아가는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독소들, 면역 체계와 인체의 커뮤니케이션을 교란하는 이 독소들이야말로 자가면역이 급증한 일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이 책에서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100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을 소개한다. 저자 자신이 직접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겪어야 했던 고통과 두려움, 뉴욕 버팔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나온 폐기물 처리장 위를 뛰놀던 아이들이 루푸스에 걸린 이야기까지, 유전적인 소인으로 발생한 자가면역 질환과 환경적 요인으로 병을 얻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등 의료기관에서 매일 환자를 만나고 자가면역 질환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현재 개발 중인 자가면역 질환의 최신 치료법을 전한다. 더불어 면역 반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식품, 무심코 사용하지만 주의하고 피해야 하는 개인 위생용품과 화장품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명확한 진단을 받기도 어렵고, 만성으로 진행되기 쉬운 자가면역 질환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파헤쳐 경보를 울리고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최신 동향을 정리한 책이다.

<목차>

- 1장. 위험 경보가 울려 퍼진 질병
- 2장. 보이지 않는 침입자: 급속한 확산을 촉발시킨 숨은 동력
- 3장. 좀 꺼림직한 비밀: 버팔로, 텍사스에서 발견한 밀집 확산
- 4장. 초강력 집단: 바이러스, 백신, 중금속
- 5장. 자가면역 질환을 찾아라: 독자적인 노선이 각광받는 시대
- 6장. 면역 체계를 지켜라: 음식, 스트레스,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을 향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저자 소개>

도나 잭슨 나가자와(Donna Jackson Nakazawa)는 수상 경력이 있는 과학 분야 전문 저널리스트로 《The Last Best Cure》, 《Does Anybody Else Look Like Me?》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PARENTING IN THE PRESENT MOMENT

가제 : 육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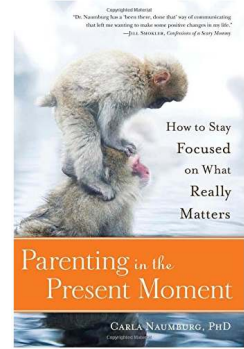
저자 : Carla Naumburg

출판사: Parallax Press

발행일: 2014년 10월 14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육아



육아의 기본 토대,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마음챙김 육아의 원리와 실천법

올바른 육아에 관한 조언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모든 부모는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르는 모든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독특한 육아서가 등장했다. 저자는 부모가 아이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판단하거나 흥분하거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마음챙김 육아’를 소개하면서 육아란 다름아닌 아이와 부모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로 삶이 어떤 변화와 문제를 겪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육아임을 강조한다.

가정의 모습이 제각각 다르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구성원마다 성격과 욕구, 특징이 다 다르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저마다 다르다. 그 어떤 효과적인 기술과 전략으로도 육아 전쟁이 하루아침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이끌고, 아이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을 수시로 느낀다. 저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또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부모가 계속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지켜보면서 ‘서로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이 키우는 일 외에도 직장 생활,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상태가 오락가락하면서 그 기분에 따라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었다가 ‘나쁜 부모’가 되기를 반복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부모가 겪는 감정의 동요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투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부모가 스스로의 삶과 감정에 대한 통제력부터 되찾지 못하면 제아무리 유익한 육아 기술이나 비법이라도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실제로 어린 시절의 혼란스러운 기억과 두 딸을 키우면서 경험한 절망적인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자는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인 지위, 가족 구조와 상관없이 누구나, 현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육아의 튼튼한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 연민과 애정이 담긴 자기 관리, 마음챙김 명상의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주고, 도전하고 해결할 일이 끊임없이 눈 앞에 등장하는 육아

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모든 가정이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육아 지침서다.

<목차>

1장. 시작하면서 / 자주 묻는 질문

2장. 나의 이야기

소비 / 통제 / 비교 /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3장. 연결 상태 유지하기

안전하게 / 보다 / 달래다 / 지지하다 / 연결상태 유지를 도와줄 노스스타(North Star) 실천법

4장. 현 상태에 집중하라

자기 인식 / 자기 연민 / 자기 관리 / 지원 / 현 상태 집중을 도와줄 노스스타 실천법

5장. 현재에 머물러라

침착하라 / 간소화하라 / 기미 / 단일 과제 / 현재에 머무르도록 도와줄 노스스타 실천법

6장.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칼라 나움부르크(Carla Naumburg)는 임상 사회복지 박사를 취득하고 보스턴에서 임상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이다.저서와 활동 등이 <뉴욕타임스>, <허핑턴 포스트> 등 다양한 매체와 학술지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됐다.